
'24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2024. 2.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2. 14.(수) 10:00~11:10
-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8층 간담회장1
- ◆ 참석현황 :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9명
- ◆ 안 건 : 총 6건
 - 지하철역명 명칭 개정 1건, 제정 5건,

<간 사>

- 인사말
- 참석위원 소개

<부위원장>

- 지금부터 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안건보고

<부위원장>

- 오늘 안건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간사가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소관부서가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자치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관계자들이 배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치구 관계자의 의견진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7호선 독성유원지 역명 개정안 1건에 대해서 따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번 위례 트램 5개 정거장은 한꺼번에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을 입장을 시켜주시죠.

지하철 역명 개정

제1호 안건

7호선 독섬유원지역 역명 개정(안)

제1호 안건설명

<도시철도과장>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입니다.

먼저 독섬유원지 역명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관할 자치구인 광진구의 요청으로, 역명 개정안을 상정한 건입니다. 92년 한강종합개발 사업으로 독섬한강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섬유원지라는 역명을 사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동명인 자양역으로 역명을 개정을 해서, 해당 시설이 위치한 독섬한강공원을 병기하고자 하는 건으로, 광진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선호도 1순위에 해당하는 역명 안으로 광진구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 위원님들 그 제안 부서장한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전에 92년도 자양역으로 그 역 개통 전에 결정을 했는데, 노유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자양역을 못 썼다가, 노유동이 자양동으로 통합되면서 다시 그 자양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광진구청장님 의견진술 입장시켜주시죠. 이 역명 개정에 대한 의견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

○ 예,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독섬유원지역 역명 개정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로 독섬유원지에서

독성한강공원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1992년 독섬유원지역의 정식 역명은 자양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현재는 자양4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노유1, 2동 주민들의 극성적인 반대와 또 독성한강공원을 홍보해야 된다는 우리 서울시의 그런 의도 그런 게 합쳐져서, 현재의 역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독섬유원지역 개통 후, 2호선 독섬역과 명칭이 혼돈되어 이용 승객에 불편이 초래되어왔으며,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용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헛갈린다.’ 이런 말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독섬유원지역 인접 노유1, 2동이 자양4동으로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된 후에, 주민들께서 독섬유원지역 명을 자양역으로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역명 개정 추진 경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총 4번의 주민 건의가 접수되었고, 2012년에는 2,763분의 주민 연서로 역명 개정 주민건의서가 접수되어 자양 독섬유원지역으로 역명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시 지명위원회에서 역명 병기 불허와 자양동 외곽에 위치하여 자양역이라는 역명은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역명 개정이 보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3년8월에 역명을 공모하고, 24년1월에 주민선호도 조사와 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역명 개정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런 구청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1순위는 역명을 병기한 자양 독성한강공원역, 2순위는 자양한강공원역, 3순위는 독성한강공원역, 4순위는 자양나루역 순으로 의결됐습니다.

우리 구의 법정동인 자양동은 자양1, 4동의 행정동으로, 광진구 총 35만7,000여명 중 28.4%인 10만여 명이 자양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섬유원지역은 자양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역명 병기는 사실 우리 그 지하철 역명 거기에는 병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이 자양이라는 명칭은 법정동명을 표기한 것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독성한강공원 역시 지하철 이용 시민에게 독성한강공원 인근이라는 지리적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시 정책사업의 큰 축인 현재 한강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한

강공원 내에 지하철역사가 위치하고 있고, 또 10월에 운항 개시될 리버버스의 정류소로 활용될 예정이며, 독성한강공원의 이용객이 현재 우리 한강에 시민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의 통일성 제고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서, 구 지명위원회의 의결안을 본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독섬유원지라는 지명은 독성한강공원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고, 실체가 유원지 실체가 없어져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1940년대 대홍수에 유실된 우리 한강에 독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일제가 독섬유원지를 조성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섬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보존하고, 2호선 독섬역과 7호선 독섬유원지역의 명칭 혼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와 법정동 지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역명 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호 안건심의

<부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위원>

○ 그 성동구에서 의견조회 시 미회신 됐잖아요. 그 성동구의 의견을 조회한 까닭은 이 한강공원의 범위에 다소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

○ 그것보다는요, 독섬역과 독섬유원지역간의 혼동문제 때문입니다. 독섬역은 지금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회한 건데, 성동구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들이 의견 없을 때는 회신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 보기에 지금 뭐 주민들의 어떤 아래로부터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의 수렴과정은

굉장히 원활한 것 같은데요. 잠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앞에도 있듯이, 이게 병기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말씀 주셨듯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독성한강공원이 3순위로 되어있고, 첫 번째가 자양(독성유원지) 병기되는 건데, 기존에 그 독성유원지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자양역이 되지 못하고 독성유원지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해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양을 살리는 거 1건하고 그다음에 공식명칭이기도 한, 독성유원지보다는 공식명칭인 독성한강공원을 쓰는 거, 이게 사실은 합당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독성유원지를 독성한강공원으로 바꾸는 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높은 부분인데, 이 자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하면 말씀 주셨듯이 자양이라고 하는 지역의 브랜드로 치우쳐서 이렇게 병기하게 된 거라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병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그런 부분에서 자양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동명이지만, 왜 독성한강공원으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병기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의견을 드립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

- 예,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자양동이라는 게 자마장리라는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범위로 보면, 우리 독도 여기보다는 자마장리가 훨씬 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 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포괄적인 그런 면에서 자양을 앞에 세우고 독성을 가운데 넣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역사, 저 자양동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역사성이 있는 거고, 또 독성 독도 독성도 굉장히 역사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광진구 입장에서는 주민들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높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니까 불가피한 병기라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부위원장>

○ 추가로 혹시 질문하실 분들?

<○○○위원>

○ 한 가지, 저도 지금 ○○○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여쭙보고 싶은 게, 이 주민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구민 자체 선호도인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뚝섬한강공원 이렇게 딱 하면 그리고 뚝섬유원 지역 하면, 이게 단순히 구민들만의 대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민이 여가생활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입지적인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서울을 떠나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자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또 병기가 되더라도 원래 원칙을 지켜서 뚝섬한강공원 이게 앞쪽으로 나가는 거나, 아니면 뭐 3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거나, 이런 게 오히려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타당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

○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어찌 됐든 자양동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법정동명이고, 또 그 뚝섬은 그 자양동의 일부라고, 사실은 이 강둑이 생겨서 한강시민공원 하면서 이렇게 구획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 자마장리 속에 하나의 한 부분이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니까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는데요. ‘저희 주민들은 자양동이 앞서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이 고려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제가 옛날에 그 처음 와서 저희 여기 독섬에서 춘계체육대회 하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독섬으로 갔어요. 독섬유원지에서 해야 된대서 다시 갈아타고,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명칭을 구분해주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살던 분들이야 뭐 편하게 가겠지만, 새로운 분들은 독섬이라는 어떤 그 큰 대명사로 가지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해주는 게,

그리고 제가 그 근처에 사는데, 독섬이 그렇게 넓은 지역을 감당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자양이라는 명칭으로 가는 거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 지명위원회 의견이 나왔고, 도시철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 동일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지명이라는 거에 대한 성격 자체를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명이라는 것이 자양동같이 법정동 명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공부상으로도 그렇고 오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독섬이라고 하는 범위가 그 위에도 가면, 저 밑에도 가면 구의동으로부터 해가지고 성수동까지 그렇게 쪽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자양이라는 이름이 그 대두가 앞에 내놓고, 그 괄호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볼 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독섬유원지를 한강공원으로 바꾼다면, 지금 현재성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성격은 젊은이들한테 부각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독섬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으로 볼 때는 일제 후기부터 우

리 60년, 70년대까지는 상당히 향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독섬이라는 지역의 어떤 속성이라 그럴까?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방향도 계속 고민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역사성 있는 지명은 그대로 살려서 꾸준히 가서, 새로운 젊은이들이라 하더라도 ‘아, 여기 옛날에 이런 땅이 있었구나, 또 어떻게 변했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현재만 보는 관점하고의 어떤 그 어디다 가치를 둘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

- 그래서 저기 ○○○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독섬유원지에서 독섬한강공원으로 공식지명으로 일치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역명 자체도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그 안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과거에 독섬유원지라는 것이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독섬한강공원보다는 자양이라는 명칭이 훨씬 이 지역의 대표성도 있고, 또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 2개를 병기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자양을 역명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부르는 이름이고, 조선 시대 때부터 자양이라는 명칭이 줄곧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이 독섬보다는 자양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병기라고 하니까 지금 형식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유원지라는 표현은 물론 뭐 옛날부터 우리가 오래 사용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라는 용어가 뭐 일본에서 온 사실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 또 반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이 뚝섬한강공원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뭐 주민들도 의견도 그렇고, 자치구 의견도 그러니까, 병기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게 큰 문제 없다고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호 안건결론

<부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다음은 위례선 트램 5개 정거장 역명 제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철도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역명 제정

제2호 안건

위례선(트램) 102정거장

제3호 안건

위례선(트램) 103정거장

제4호 안건

위례선(트램) 104정거장

제5호 안건

위례선(트램) 105정거장

제6호 안건

위례선(트램) 106정거장

제2호 안건설명

<도시철도과장>

○ 예, 이어서 위례선 트램 역명 제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내년 9월 개통예정인 위례선 트램의 역명을 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32.8%의 지금 공정이고요. 역 위례 트램의 총 역 개수는

12개 역입니다. 그중에 성남시 수정구 소재 4개 역과 3개 역은 환승역으로, 기존 역명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5개 역에 대한 역명 제정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102부터 106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송파구 지명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02정거장 역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신도시 지명인 위례에 방위명인 북을 붙인 북위례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8호선의 경우, 기존 8호선에 남위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기 참고 표시돼 있는 건데요. 해당 역 인근에 청량산의 등산로 입구인 성골마을입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위례역입니다.

두 번째 103정거장입니다. 인접한 위례솔중학교와 위례솔초등학교를 고려하여, 송파구 의결안대로 위례솔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04정거장입니다. 인접한 덕수고등학교를 고려하여, 송파구 의결안인 덕수고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05정거장입니다. 인접한 위례호수공원을 고려해서, 송파구 의결안대로 위례호수공원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06정거장입니다. 인접한 위례 지역에 광장을 고려하여, 송파구 의결안대로 위례광장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성남시 구간 4개 역은 성남시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 3, 4, 5, 6호 안건심의

<부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송파구 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저는 106정거장에 대해서 의견을 가져왔거든요. 106정거장에 보면, 여기서도 그 원래 지금 제안된 게 위례광장역인데 성남시에서 지금 제안한 게, 위례신도시의 대표광장이 여기가 아니라는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대안으로 송파위례광장역을 제안하기도 했고, 저도 지도를 보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진짜 바로 아래쪽에 위례중앙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아마 신설된 역이 있고, 거기 역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거기가 위례중앙광장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송파를 붙이는,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보면 제3의 지명, 적절한 지명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아마 그냥 송파로 구분 짓는 안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위례순환도로 위례순환로의 북쪽이더라고요. 북쪽이면서 이게 남북 방향의 중심부랑 딱 결정되는 지역이라서, 실제 '제가 사실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가 그래서 위례순환북로 정도면 어떨까. 근데 실제로 주민들은 여기를 트랜짓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트랜짓몰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딘지 대충 다 아는데, 저는 왜 거기를 그 여기 이 지역에서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으면, 아마 상업적인 색깔이 강해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십사 안을 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딱 거기가 어딘지, 위치 확인이 주민들도 어디인지 알 수 있기, 그니까 알기 쉬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2, 3, 4, 5, 6호 안건설명자>

- 예, 근데 그 위례순환북로 이런 그 명칭은요, 저희가 도로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같이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 저도 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같은 정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 의견 주신 그 심의자료에 의견 주신 부분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디서는 '이게 대표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

디서는 또 ‘대표광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왜 말이 다르지?’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랫부분에 보니까 위례중앙광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로 실제로 그 트램이 지나가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상정하는 거는 이 다른 지역에 관한 그 정거장이라서, ‘아, 그래서 중앙광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을 띠고 안 띠고를 서로 다르게 보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을 어떻게 정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지도를 보고 찾아봤는데, 그 여기 생기려고 하는 저 지점 바로 옆에 회색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도서관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이 없어지고, 이 지역에 또 다른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정하는 거는 이 시설에 뭐가 들어올지를 고려하지 않고 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설이 나중에 들어올 거라서 그전까지만 사용할 그 정거장 명을 정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게 도서관이었고 앞으로 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이면,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아마 들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공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명칭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보니까 당장 내년에 개통을 할 건데, ‘아직 급하지 않다면 혹은 이 문화시설이 뭐가 들어갈지와 같이 고려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정하든가, 아니면 ‘이 그 이게 뭐가 들어설지를 알고 있다, 현시점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고려해서 정하는 제3안을 제기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 이게 트램이다 보니 위례라는 말을 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 수용하고 싶었던 의지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서 ‘위례광장이 어디 있지?’ 이걸 찾아봤는데, ○○○ 교수님하고 똑같은 걸로,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명하고 이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당장 이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으니, 일단은 지금 불러지고 있는 도로명에 준해서, 그냥 위례 그 광장역이라고 붙여놓은 거 아닌가. 근데 예전에 왜 동대문역사박물관역 이렇게 변경된 것처럼, 나중에 어디 뭐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무슨 무슨 박물관역이라든가, 뭐 위례광장 뭐 무슨 뭐 도서관역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이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

- 저 인근에 공공기관이 언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들어설 일정이 있나요?

<제2, 3, 4, 5, 6호 안건설명자>

- 지금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요. 용도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직은 미래의 이야기고요. 저희가 뭐 이 트램 자체가 내년도 9월에 저희가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미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고 또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건데, 이 트램은 어떻게 보면 철도 역명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정류소 버스정류소의 어떤 그런 성격도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일반적인 철도명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또 공모도 하고,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 지명위원회도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저희 구청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분들이 그렇게 지금 위례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트랜짓몰이라도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위례동 주민들은 위례광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례광장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고, 거기 위례광장 쪽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최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위례광장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명칭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뭐 계속 각인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들 의견을 물론 잘 그 수용하는 게 좋긴 한데, 그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남시 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 성남시 쪽에 위례 그 지역에는 넓은 광장이 없나요?

<제2, 3, 4, 5, 6호 안건설명자>

- 그 성남시는 그 저희한테 송파위례광장이라는 명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는 차원인데, 성남은 그 위례중앙광장이라고 광장역을 107정거장에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저희하고 구분하는 차원에서 송파라는 명칭을 넣어달라.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위원>

- 그니까 거기는 그럼 위례중앙광장역이라고 만든다고요? 위례중앙광장역하고 위례광장역하고 이렇게 2개가 생기면, 당장 그 혼동이 생길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위원>

- 그니까 광장이 굳이 저는 광장역이 연달아 2개가 있는 것도 구분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관리 차원에서든 여러 차원에서, 지명 구분을 하고 싶으신 게 또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구역 구분보다는 사실 위례신도시라는 전체라는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고 싶지, 여기까지는 송파구 여기서부터는 성남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구분보다, 그냥 시설이나 기능이나 이런 차원에서 역명이 이루어지는 거를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사실 송파, 굳이 굳이 대안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송파위례광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 저 그리고 한 가지 ‘이걸 만약에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 송

파구민들은 여기를 위례광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굳이 자치구로 나누지 말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 정거장 차이면 왔다 갔다 충분히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사람들, 성남시 사람들, 이 위례신도시라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 광장을 그러면 위례중앙광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위례광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생각 의견을 받아보신 후에, 정말로 위례광장을 진짜 위례광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통합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시고 나서 정하는 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 근데 저기 행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니까, 언제까지 정하면 될까요?

<제2, 3, 4, 5, 6호 안건설명자>

○ 사실은 그 개통은 내년 9월인데요. 그거 개통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더 좋은 일인데요. 뭐 오늘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시는 거면, 이번에 이렇게 지명위원회가 이렇게 열렸을 때 어떤 결정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그럼 우선 106정거장은 뒤로 미루고 105번 정거장까지 먼저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 104번이요, 104번. 저기 여기 덕수고에, 저는 사실 덕수고를 고등학교로 안 보고, 그냥 봤을 때 ‘아, 덕수고라는 명칭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덕수고등학교가 맞지 않는가. 대학교는 한양대라든가 옛날부터 그 선례가 쪽 있으니까 느낌상으로 딱 다가오는데, 고 하니까 없는 것 같아요, 선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그냥 던져봤습니다.

<부위원장>

○ 풀네임으로 덕수고등학교, 이렇게 표기를 하시자는 말씀이죠?

<○○○○위원>

○ 예,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뭐 아현초등학교역 뭐 이런 건 있는데, 아현초역 이런 건 진짜 없는 것 같네요.

<○○○○위원>

○ 근데 이게 바로 그 위에는 위례솔, 위례솔중학교, 초등학교 바로 붙어있고, 여기도 덕수고 또 바로 붙어있고, 근데 그 양쪽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2, 3, 4, 5, 6호 안건설명자>

○ 예, 그 부분은 오히려 그쪽으로 그쪽 학교 의견도 학교 학부모들 의견도 그런 반대보다는 찬성 쪽입니다.

<부위원장>

○ 근데 저는 위례솔이라는 표기가 위례솔이라는 게 지명인가요?

<제2, 3, 4, 5, 6호 안건설명자>

○ 위례가 지명이고요. 솔은 소나무의 그 솔 자를,

<○○○○위원>

○ 이게 가로명이 역 이름이 정하기 전에 이미 저 중학교 이름들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런 방향으로서 이끌어주는 것도, 따라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 저도 ○○○○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일단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순우리말에 해당하는 송파에서 오는 솔 자를 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근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연관성을 가지는 역명을 붙이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례솔 자체에 대한 역명은

저는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저는 또 다른 저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그 저 북위례역이 있는데, 이게 위례신도시에서 북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 이 역이요, 제가 지도에서 봤을 때. 그니까 이게 방위지명을 붙이는 게, 저는 별로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위례신도시가 혹시나 뭐 더 커진다든지 할 경우에, 이 부산 같은 데는 이 방위지명이 지금 다 엉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방위하고 안 맞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뭐 어차피 이게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그 이름을 붙이기가 저 곤란해가지고 전부 다 위례라는 게 들어가고 방위지명도 나온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전혀 없으신 거죠?

<○○○○위원>

○ 주민선호도는 북위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와 가지고.

제2, 3, 4, 5, 6호 안건결론1

<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간점검을 해보면 103정거장은 위례솔역, 그다음에 104정거장은 덕수고등학교역, 예, 이렇게 정하시는 걸로 하고요. 혹시 그 저기 우리 송파 도시교통과장에게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설명자 퇴장)

제2, 3, 4, 5, 6호 안건결론2

<부위원장>

○ 그러면 일단 여기 102하고 105에 대한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 북위례 이름 제의에서 그냥 북위례가 무난하긴 한데요. 이미 남위례역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혼동이라고 그럴까? 혼란성은 없을까요? 자체가.

혼동성이 없다면 뭐 그대로 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생각이 들고 그 성골마을입구라는 말은 그 지역 동네 이름 이야기를 하는데, 성골이라는 남한산성 이야기거든요. 남한산성 등산 입구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별 타당성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말 자체를 바꾼다면 아예 청량산으로 붙이면 되죠, 아예 큰 산 입구로.

<○○○위원>

- 예, 근데 또 청량산도 애매한 게, 청량산이 크기 때문에 하남, 뭐 성남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큰 산 이름을 붙인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그냥 별 대안이 없으면 북위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괜찮으실까요? 북위례로 해도.

<위원들>

- 예, 좋습니다.

<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북위례역으로 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면 105번 정거장입니다. 위례호수공원 뭐 표기를 해왔는데요.

<○○○위원>

- 좋습니다, 여기는, 이걸.

<○○○위원>

- 예, 이거는 그냥 하시면, 구 지명위원회에서 정했고,

<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결정하기로 하고요. 106번을 오늘 논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대안을 찾아서 다음번에 숙성을 시켜서 다음번에 논의를 하실까요? 이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전 다음에 했으면,

<○○○위원>

○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위원>

○ 예, 저는 뭐 ‘송파위례광장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래위에 대한 광장명, 워 첫 시작에서 용어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워 혼란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위원장>

○ 그렇다면 여러의견이 있으시니 106번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꼭 광장이라는 것을 붙일 것인지, 다른 대표시설이 곧 입주한다고 그러면 건축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하는 게 나을지, 따져서 다시 한번 심의하고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폐회